국제금융시장 8월 동향 및 9월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심 한 용 (hyshim@kdb.co.kr)
박 지 혜 (jh5702@kdb.co.kr)

◆ **(환율)** 8월 원/달러 환율은 연준 독립성 우려 등에 따른 약달러에도 박스권 등락, 9월은 對美 수출 부진 지속 등 상방 요인에도 연준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전망

◆ **(금리)** 8월 주요국 금리는 국가별로 상이한 흐름, 9월 미국 금리는 하락할 전망이나, 일본은 기준금리 인상 기대, 유로존은 고용시장 낙관론 아래 상승 예상

◆ **(주가)** 8월 주요국 주가는 美 금리인하 기대감의 영향으로 상승, 9월도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미국의 추가 품목별 관세 부과 우려와 BOJ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조정 요인

□ 8월 주요 경제·금융 동향 : 파월 의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인하 재개 시사, 한은과 中 인민은행은 금리 동결

○ 연준 파월 의장, 잭슨홀 미팅 연설(22일)에서 금리인하 재개 시사

- 파월 의장은 관세가 물가*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해졌고, 취업자 수**의 대폭 감소 등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

* 소비자물가 상승률(%, yoy) : 2.8('25.2월) → 2.4(3월) → 2.3(4월) → 2.4(5월) → 2.7(6월) → 2.7(7월)

** 비농업고용 전월차(만명) : '24.5~7월 평균 16.8 → '25.5~7월 평균 3.5

- 물가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양대 책무 중 고용 리스크 증가로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, 데이터와 경제전망에 기반한 의사결정 원칙을 강조

○ 한국은행은 금통위(28일)에서 기준금리 2회 연속 동결 (2.50%)

- 낮은 물가상승률* 지속에도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**의 추세적 안정화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에 따라 7월에 이어 기준금리 동결

* 소비자물가 상승률(%, yoy) : 2.1('25.3월) → 2.1(4월) → 1.9(5월) → 2.2(6월) → 2.1(7월)

** 가계부채 증감액(조원) : △0.9('25.1월) → 4.2(2월) → 0.7(3월) → 5.3(4월) → 5.9(5월) → 6.5(6월) → 2.2(7월)

- 소비 개선과 견조한 수출, 對美 관세협상 타결 등으로 성장 전망치를 소폭 상향*, 이창용 총재는 '26년 상반기까지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기조 유지를 시사

* '25년 한은 경제성장률/물가상승률 전망치(%) : 1.5/1.9('25.2월)→ 0.8/1.9(5월) → 0.9./2.0(8월)

○ 中 인민은행(20일), 대출우대금리(LPR)를 동결 (1년물 3.00%, 5년물 3.50%)

- 미국의 對中 관세 부과 90일 연기(12일) 등 통상환경 개선 기대 속에 견조한 성장률('25.1Q 5.4% → 2Q 5.2%)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금리 동결

- 7월 내수* 둔화가 관측된 가운데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는 하반기 통화정책방향 발표(1일)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시사

* 中 내수 증가율(%, yoy, 투자는 ytd, '25.6월→7월) : 소매판매 4.8→3.7, 산업생산 6.8→5.7, 투자 2.8→1.6

□ '25.9월 주요 국내외 경제·금융 이벤트

○ 미국, FOMC(16~17일) : 관세發 인플레이션 위험에도 고용시장 둔화와 성장률 하락('24년 2.4% → '25.상반기 1.2%) 등으로 금융시장*은 경기 부양을 위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

* 연방기금금리선물에 반영된 9월 FOMC 25bp 인하 확률은 88.7%('25.8.28일)

○ 유로존, ECB 회의(11일) 및 일본, BOJ 회의(18~19일) : 유로존은 물가* 안정세 속에 對美 통상합의에 의한 불확실성 완화로 기준금리 동결 전망, 일본은 높은 물가상승률** 지속과 성장률 개선('25.1Q 0.1% → 2Q 0.3%) 등으로 25bp 인상 예상

* 유로존 소비자물가(HICP) 상승률(%, yoy) : 2.2('25.3월) → 2.2(4월) → 1.9(5월) → 2.0(6월) → 2.0(7월)

** 日 소비자물가 상승률(%, yoy) : 3.7('25.2월) → 3.6(3월) → 3.6(4월) → 3.5(5월) → 3.3(6월) → 3.1(7월)

□ 주요 금융지표 동향 및 전망

○ (환율) 8월 원/달러 환율은 연준 독립성 우려 등에 따른 약달러에도 박스권 등락, 9월은 對美 수출 부진 지속에도 연준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하락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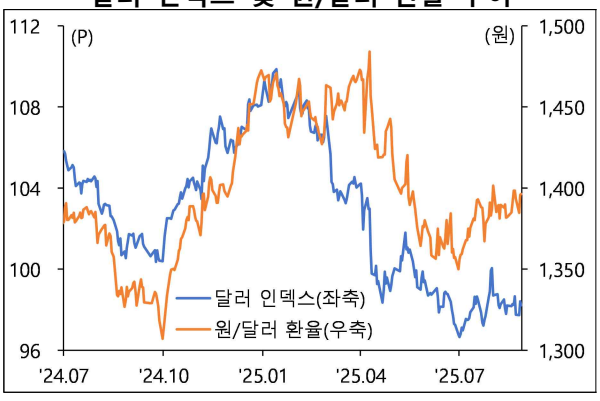
- 8월 원/달러 환율은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* 등에 따른 약달러에도 美 상호관세 부과 본격화 등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여 1,400원 아래에서 박스권 등락

* 트럼프는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후임으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출신 스티븐 마이런을 지명(7일)하였고,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리사 쿡 연준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(27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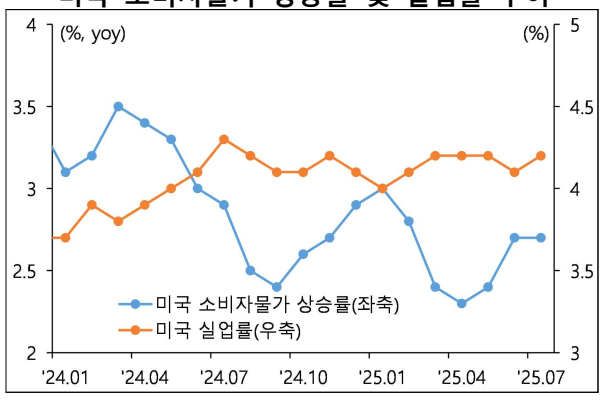
- 9월 원/달러 환율은 對美 수출* 부진 지속이 상방 요인이나, 연준 금리인하 기대와 美·中 관세 부과 유예 추가 연장 등으로 소폭 하락 전망

* 전체/對美수출 증가율(%, yoy) : 3.5/△3.4('25.4월) → △1.3/△4.4(5월) → 4.4/△3.8(6월) → 5.8/△3.1(7월)

달러 인덱스 및 원/달러 환율 추이



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실업률 추이



	'23년말	'24년말	'25.7월말	'25.8월말	전월대비
원/달러 환율	1,294.5	1,472.5	1,387.0	1,396.3	+0.7%
달러 인덱스	101.47	108.09	100.05	98.215	△1.8%

자료 : 연합인포맥스, Bloomberg

○ (금리) 8월 주요국 금리는 국가별로 상이한 흐름, 9월 미국 금리는 하락 전망되나, 일본은 금리인상 기대, 유로존은 고용시장 낙관론 아래 상승 예상

- 8월 미국 금리는 고용시장 둔화 및 주요국 관세협상 완료에 따른 미국채 수요 확대로 하락, 독일 금리는 박스권 내 등락, 일본 금리는 경제성장률 개선과 BOJ 금리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하며 상승
- 9월 미국 금리는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하락세 지속 예상, 유로존은 ECB 라가르드 총재의 고용시장 낙관론* 아래 상승 예상, 일본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전망

* 유럽 노동시장이 코로나 이후 물가상승과 빠른 금리인상에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고 언급(23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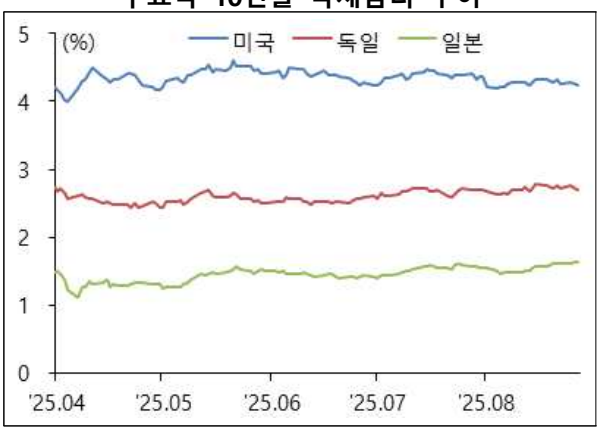
○ (주가) 8월 주요국 주가는 연준 금리인하 기대 확대 등으로 상승, 9월도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미국의 추가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성 등이 조정 요인

- 8월 주요국 주가는 양호한 기술주 실적과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확대 등으로 상승, 日 니케이지수*는 대미 관세협상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월중 역대 최고치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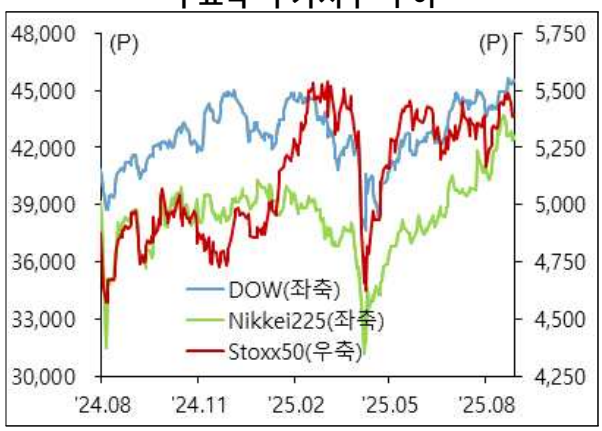
* 8.18일 종가 기준 니케이지수는 43,714.3을 기록, '25.8월 이전 최고치는 '24.7.16일자 42,224.0

- 9월 주요국 주가는 美 금리인하 기대 아래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, 트럼프의 반도체와 의약품 등 추가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성 등이 조정 요인

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 추이



주요국 주가지수 추이



	'23년말	'24년말	'25.7월말	'25.8월말	전월대비
미국채 10y	3.897	4.533	4.374	4.234	△3.2%
독일채 10y	1.979	2.367	2.695	2.700	+0.2%
일본채 10y	0.623	1.101	1.557	1.626	+4.4%
다우존스	37,385.97	42,573.73	44130.98	45,565.23	+3.2%
유로 Stoxx 50	4,521.47	4,869.28	5319.92	5,393.07	+1.4%
Nikkei 225	33,169.05	39,894.54	41069.82	42,632.04	+3.8%

자료 : Bloomberg